

2025년도 4/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요약

☛ 전망 지수

-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결과,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BSI, n=71)는 52.1로 조사되었음.
-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호전(상승, 증가)'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악화(하락, 감소)'로 응답한 업체 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을 나타냄.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연관 업종(n= 42개)은 '52.4'였고, 일반제조업(n= 29)은 '51.7'로 조사되었음.

☛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 추이(BSI), '21년 2/4분기 ~'25년 4/4분기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종합	91.5	83.8	89.3	88.4	97.1	62.3	73.8	89.2	102.9	83.8	83.6	80.6	95.2	77.8	70.7	58.6	69.4	55.7	52.1
석유화학연관업종	82.5	84.6	100	94.7	97.2	60.5	70.6	88.6	102.8	75.7	86.1	75.8	88.9	73.8	72.5	67.5	73.2	46.2	52.4
일반업종	103.2	82.8	75	80.6	96.9	64.5	77.8	90	102.9	93.5	80.6	86.2	103.8	82.1	68.6	46.7	64.5	67.7	51.7

- (석유화학업종) 중국의 감산 기조와 국내 사업재편 움직임, 제품 스프레드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중동국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범용제품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
- 정부 지원책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사업 재편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분기 큰 폭으로 하락했던 석유화학업종의 체감경기는 회복세 없이 부정적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업종) 여수산단 장기 불황으로 수주하도급 감소, 고용 불안,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지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여기에 지역 이미지 하락에 따른 관광업 부진까지 겹쳐 체감경기가 지난 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타 질의응답 ※ 세부 항목 조사 결과는 다음 장부터 확인 가능

- 기업 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입법 분야는 무엇입니까?

법인세 등 기업비용 증가	노사관계 부담 중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제도 규제 강화	입지, 환경 등 규제 강화	정년연장 등 고용부담 가중	납품대금 연동제 등 시장규제 확대	기 타	계
37	29	28	15	9	3	3	124
29.8%	23.4%	22.6%	12.1%	7.3%	2.4%	2.4%	100.0%

1. 조사의 개요

❶ 목적

-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다음 분기 경기전망(체감조사)을 조사·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❷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 '25년 3/4분기(7, 8, 9월) : 실적 기간
- '25년 4/4분기(10, 11, 12월) : **전망 기간**
- 조사 기간 : '25.9.15. ~ '25.9.26. (휴일 제외 10일)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방식(리커트 척도)

❸ 조사 대상

-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 사
- 응답 개수 : **71개(설문지 회수율 : 38.2%)**

❹ 조사 내용

- 전반적인 체감경기(경기실적 및 전망)
-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

❺ 집계·분석

- 회수된 조사표를 항목별로 집계·통계(리커트 척도)·분석·보고

❻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작성 방법

-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하여 조사

$$\text{기업경기전망지수(BSI)} = \frac{\text{증(+) 응답 업체 수} - \text{감(-) 응답 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 Business Survey Index (0≤BSI≤200)

-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상승, 증가)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뜻함.

2. 2025년 4분기 기업경기 전망

종합 전망

-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지 7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38.2%**였으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52.1**로 조사되었음.
- 이 가운데 석유화학 연관 업종(응답 42개)의 경기전망지수는 52.4로 나타났음.

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

▶ 종합 (N=71)

구분	항목	'25년 3Q 실적 (전 분기 대비)	'25년 4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54.9	52.1
	매 출 액	63.4	54.9
	영업이익	67.6	53.5
	설비투자	70.4	69.0
	자금사정	57.7	56.3

▶ 석유화학연관 업종(N=42)

구분	항목	'25년 3Q 실적 (전 분기 대비)	'25년 4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54.8	52.4
	매 출 액	64.3	57.1
	영업이익	73.8	54.8
	설비투자	69.0	73.8
	자금사정	61.9	61.9

▶ 일반 업종(N=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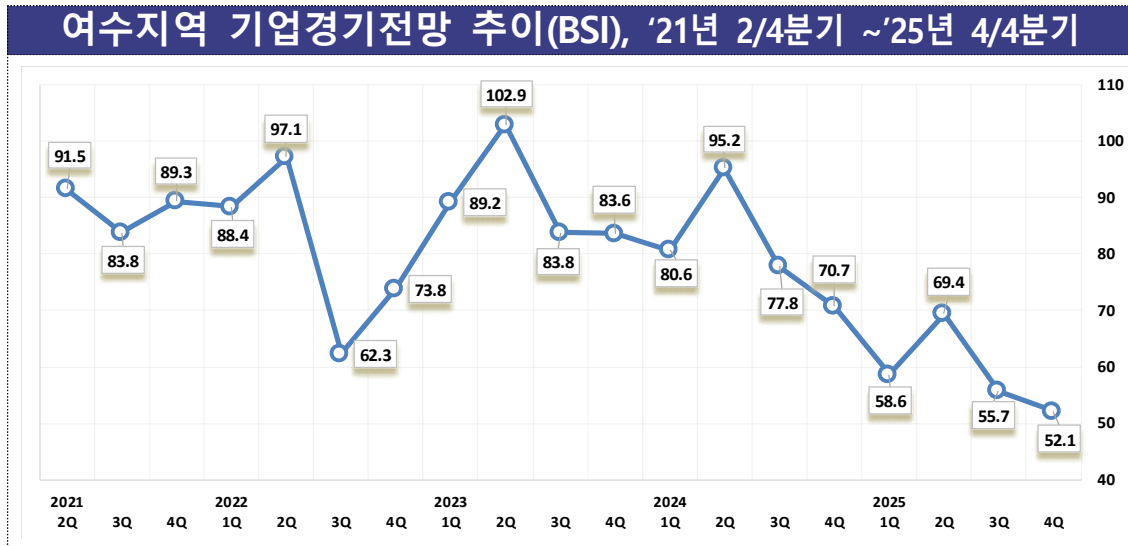
구분	항목	'25년 3Q 실적 (전 분기 대비)	'25년 4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55.2	51.7
	매 출 액	62.1	51.7
	영업이익	58.6	51.7
	설비투자	72.4	62.1
	자금사정	51.7	48.3

조사 결과 분석

- '25년 4/4분기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BSI, n=71)는 52.1로 조사되었으며, 설문 응답 수는 71개로 회수율은 38.2%임.
- 경기전망지수(BSI)는 전 분기 대비 다음 분기의 기업경기 체감

도를 나타내며, 기준값인 100은 체감도가 같음을 의미함.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호전(상승·증가), 100을 하회하면 악화(하락·감소)로 평가됨.

- '25년 4/4분기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는 52.1로, 전 분기(55.7) 대비 3.6 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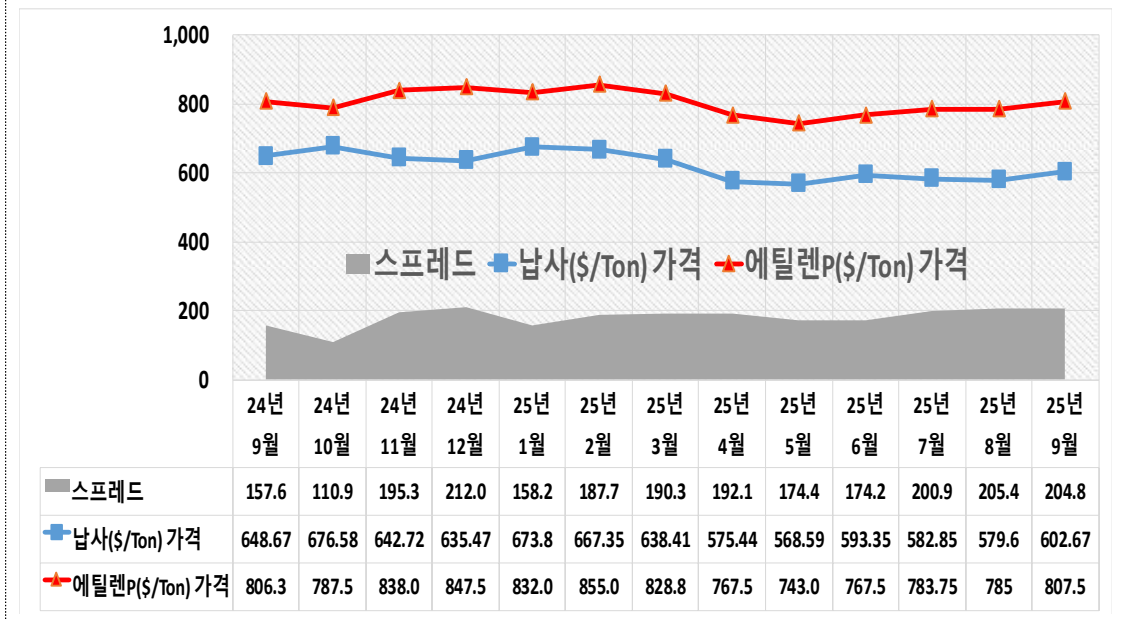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 업종이 전 분기 대비 6.2 포인트 상승한 52.4, 일반제조업은 16.0 포인트 하락한 51.7로 나타났으며, 두 업종 모두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며 '부정적'인 결과를 보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종합	91.5	83.8	89.3	88.4	97.1	62.3	73.8	89.2	102.9	83.8	83.6	80.6	95.2	77.8	70.7	58.6	69.4	55.7	52.1
석유화학연관업종	82.5	84.6	100	94.7	97.2	60.5	70.6	88.6	102.8	75.7	86.1	75.8	88.9	73.8	72.5	67.5	73.2	46.2	52.4
일반제조업종	103.2	82.8	75	80.6	96.9	64.5	77.8	90	102.9	93.5	80.6	86.2	103.8	82.1	68.6	46.7	64.5	67.7	51.7

- 종합 BSI: 55.7(25년 3/4분기) → 52.1(25년 4/4분기), **3.6 하락**
- 석유화학 연관 업종 BSI : 46.2(25년 3/4분기) → 52.4(25년 4/4분기), **6.2 상승**
- 일반제조업종 BSI : 67.7(25년 3/4분기) → 51.7(25년 4/4분기), **16.0 상승**
- 석유화학업종은 중국의 노후 설비 정리 등 감산 기조와 단기적 유가 안정, 제품 스프레드 소폭 반등, 정부 주도의 국내 사업 재편 논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중동 지역의 공급과잉 압박까지 겹치고 있음.
- 이에 따라 범용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정부 지원책이 가시화 되지 못하면서 사업 재편이 난항을 겪고 있음. 그 결과 지난 분기 큰 폭으로 하락했던 석유화학업종의 체감경기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여전히 부정적으로 조사되었음.

에틸렌 스프레드 추이, '24년 9월 ~ '25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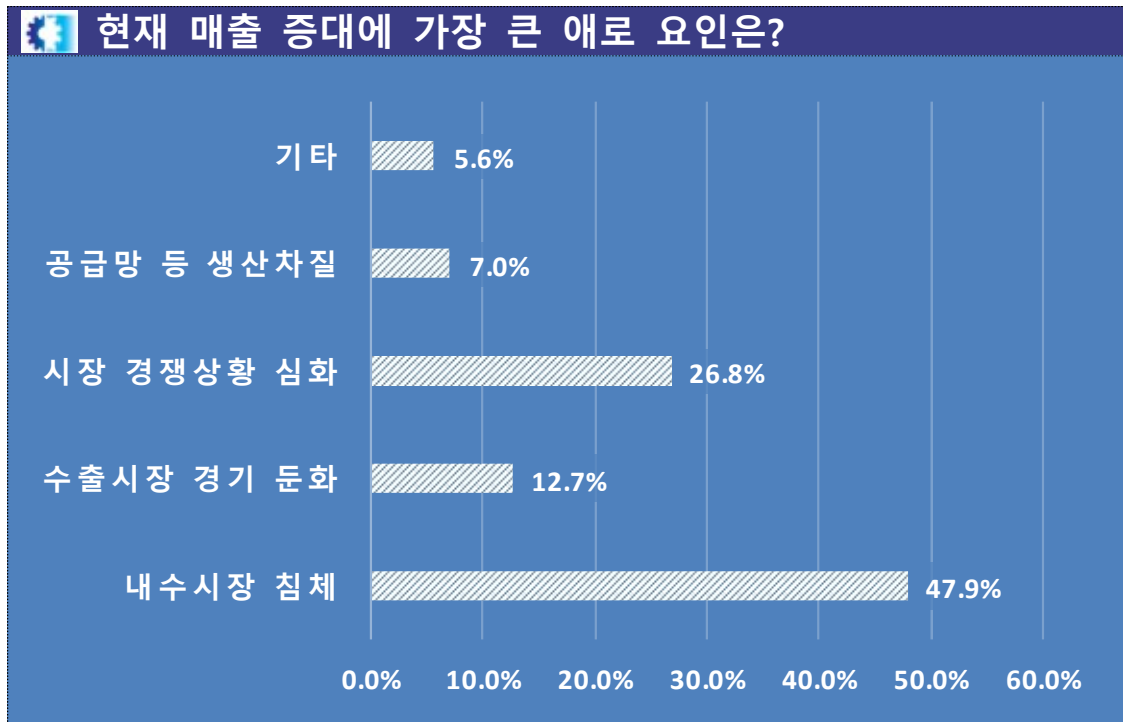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분석

- 일반업종의 경우,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 여파로 지역 내 수주 및 하도급 물량 감소, 고용 불안, 가계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 등 연쇄작용이 발생하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지역 내 음식 서비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전반적인 지역 이미지 하락이 관광업 부진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석유화학산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위축과 투자 위축이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경기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여수지역의 경기전망지수가 지난 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종합하면, 석유화학산업의 전례 없는 불황이 단일산업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으며, 외부적 호재나 구조적 전환이 없는 한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여수지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이어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 불황이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임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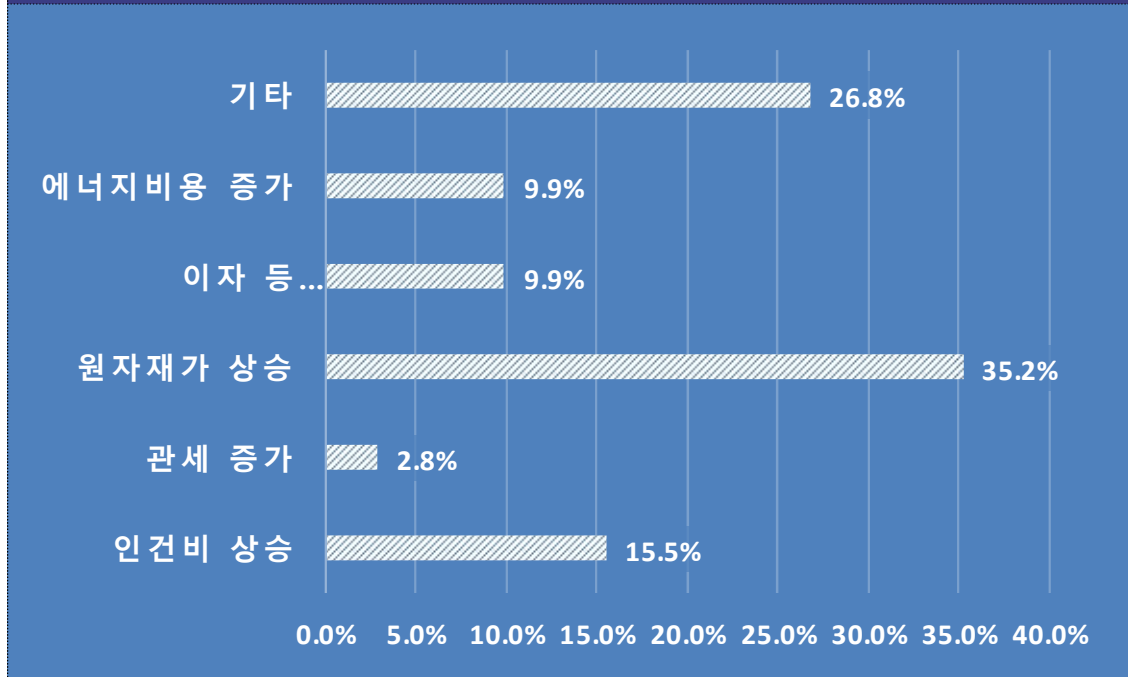
- 따라서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전기료 감면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조속히 병행될 필요가 있음.

3. 세부 항목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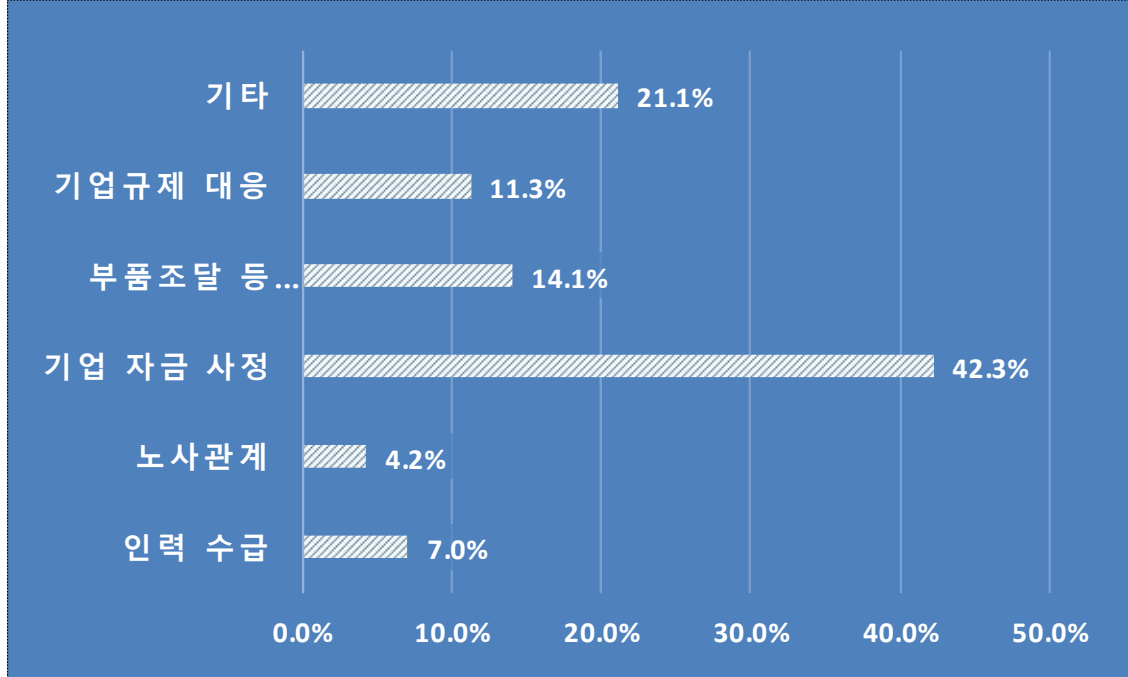
- ▶ 내수시장 침체(47.9%) > 시장 경쟁상황 심화(26.8%) > 수출시장 경기 둔화(12.7%) > 공급망 등 생산차질(7.0%) 순으로 조사됨.

기업경영 상 비용 측면에서 수익성을 악화시킨 가장 큰 애로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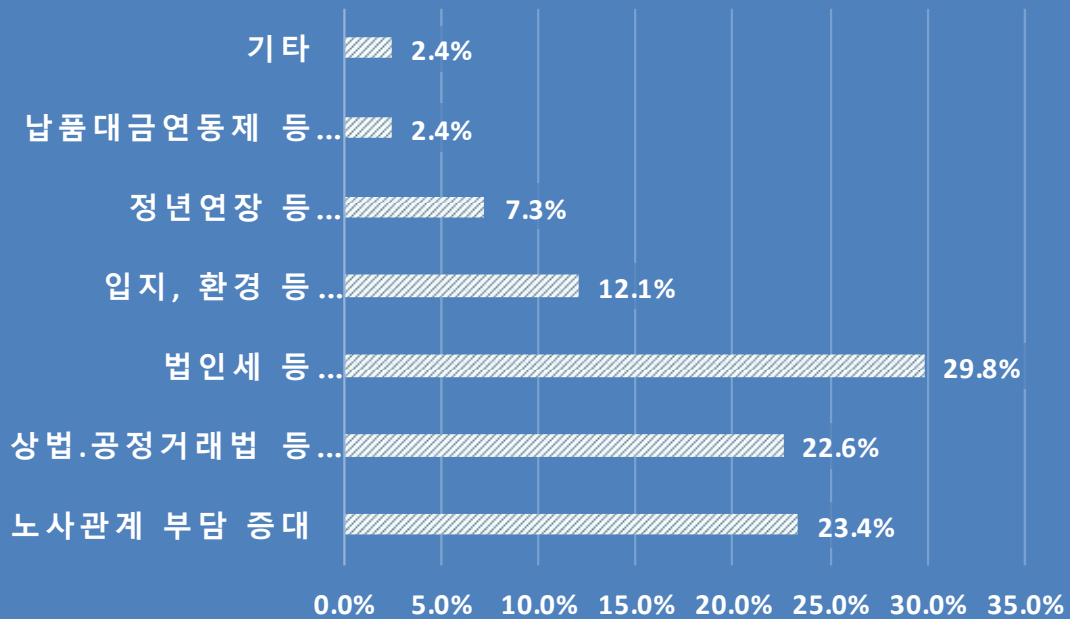
- ▣ 원자재가 상승(35.2%) > 인건비 상승(15.5%) > 에너지비용 증가 (9.9%) = 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9.9%) > 관세 증가(2.8%) 순으로 조사됨.

생산 및 조직 관리 차원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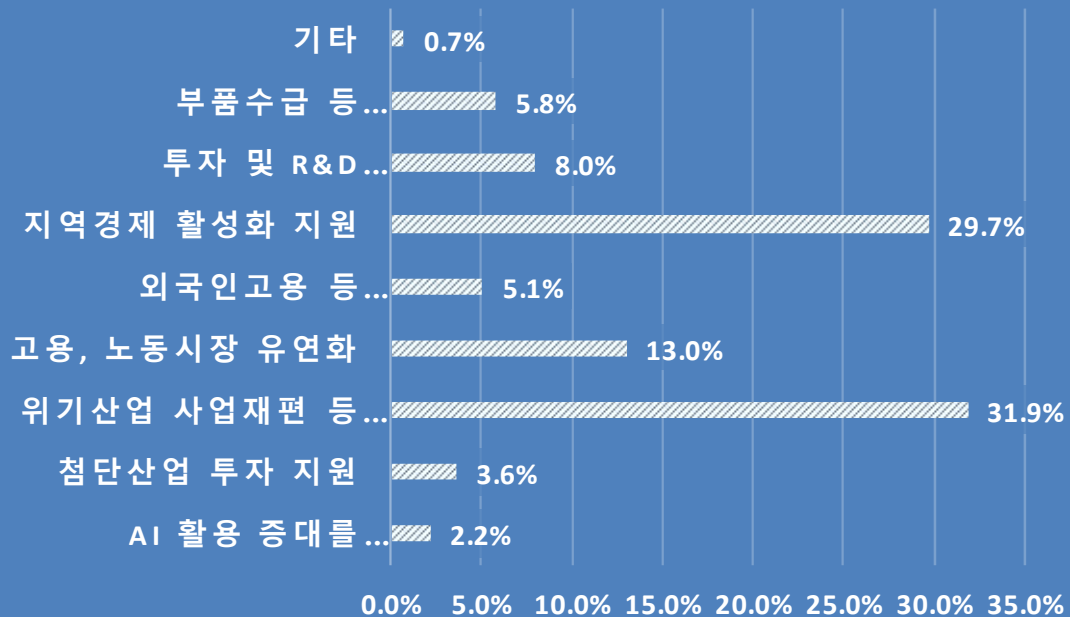
- ▣ 기업 자금 사정(42.3%) > 부품조달 등 공급망 관리(14.1%) > 기업 규제 대응(11.3%) > 인력수급(7.0%) > 노사관계(4.2%) 순으로 조사됨.

기어 기업 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입법 분야는 무엇입니까?



- ▶ 법인세 등 기업비용 증가(29.8%) > 노사관계 부담 증대(23.4%) >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제도 규제 강화(22.6%) > '입지, 환경 등 규제 강화(12.1%) > '정년연장 등(7.3%) > 납품대금연동제 등 시장 규제 확대(2.4%) 순으로 조사됨.

기어 기업성장과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 분야는?



- ▣ 위기산업 사업재편 등 지원(31.9%)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29.7%)> 고용, 노동시장 유연화(13.0%) > 투자 및 R&D 인센티브 확대(8.0%) > 부품수급 등 공급망 안정화 지원(5.8%) > 외국인고용 등 인력수급 지원(5.1%) > 첨단산업 투자 지원(3.6%) > AI활용 증대를 위한 지원(2.2%) 순으로 조사됨.





여수상공회의소